

## 로버트 배노이, 대선지자, 제15

### 강 주님의 종 주제 계속

#### 2. 여호와와 종(사 42:1-7) 및 질문

이사야 42장 1~7절입니다. 특히 4절에 보면 종의 일에 대해 꽤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그가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까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법에 섬들이 소망을 두리라.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 “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주리라” 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포로된 자를 옥에서 풀어주며 흑암에 앉은 자를 구덩이에서 놓아 주리라 .”

이미 41장 8절에서 “내 종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종의 일에 기인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질문은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에서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42장 19절로 내려가면 다음과 같이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 먼 종이 아니면 귀머거리가 되느냐? 내가 보내는 메신저처럼? 나에게 맡겨진 사람, 여호와와 종과 같이 눈먼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많은 것을 보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는 열려 있어도 아무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 22절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은 약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도다. 그들 모두는 구덩이에 갇혔거나 감옥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출할 사람 없이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도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갇힌 사람들을 감옥에서 풀어내겠습니까? 그들이 눈멀고, 약탈당하고, 약탈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열방의 빛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진짜 질문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은 그 대답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사야 24:24      그러나 42장 24절에서는 또 다른 사상을 집어 들어 소개합니다. “ 누가 야곱을 노략거리가 되도록 넘겨주셨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겨주셨는가? ” 이스라엘은 왜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 “ 누가 야곱을 약탈당하도록 넘겨주셨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주셨는가? 우리가 그에게 범죄한 것은 여호와가 아니냐? 그들은 그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로 잡혀 고통 가운데 두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전개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며,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이 되고, 땅 끝까지 공의를 베풀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구출할 것입니다. 속박과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자신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 여기서 제기된 문제는 다소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 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포로 생활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망명이 그들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죄입니다. “누가 야곱을 약탈당하도록 넘겨주셨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주셨는가? 우리가 그에게 범죄한 것은 여호와가 아니냐? 그들은 그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임무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합니까? 문제의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는 종에 관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1장 앞 부분을 되돌아보면 그 종은 1절에 있는 주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 종은 주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었으니” 2절과 3절에서 그의 품성의 온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고지 아니하리로다.” 4절, “그가 민족들에게 공평을 베풀 것이며 땅에 공의를 베풀 것이며 해안 지역은 그분의 법을 기다릴 것입니다.” 6절 “그는 이방인들의 빛이 되리라” 7절, “포로된

자를 감옥에서 놓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19절과 20절에 이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할 주의 종은 소경입니다. “내 종 외에 누가 소경이냐?”

### 3. 이사야 43:10

다음 종의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구절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10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고 내 뒤에도 없으리라’ 이제 그 구절은 43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매우 잘 알려진 구절 다음에 나타납니다. 사실 43:1-4은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당신은 내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강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불사르지 못할 것이다 .’”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사람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완전히 망하거나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택한 종이니라 ” 그러므로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스라엘은 42장, 즉 4절과 6절의 세계적인 사업이 성취될 때까지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종의 주제를 다루는 구절은 10절뿐입니다.

이사야 43:22-25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 그러나 이사야 43 :22 이하로 내려가면 매우 유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42장의 마지막 부분, 즉 이전 장의 끝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그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에 대한 진술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했지만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43장 22절에 “ 번제할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희 제사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고 했습니다. 나는 소제를 드리는 일로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향을 요구함으로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신은 나를 위해 향기로운 창포를 사지 않았고, 당신 제물의 기름을 나에게 아낌없이 주지도 않았습니까 . 그러나 너희는 너희 죄로 나를 무겁게 하고 너희 범죄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 그래서 여기에 42장의 끝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아이디어, 즉 상황의 절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해야 했지만 “너희가 너희 죄로 나를 괴롭게 하였고 너희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43장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 그러므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범법을 도말하고 그들이 겪게 된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끝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네 허물을 도말하고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답이 없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 그 종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고 여호와께 택함을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종을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 ”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로 여호와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25절에서는 “ 나는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라고 말합니다.

통과 범위는 정의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 “종” 이라는 용어는 43:10 에 언급되어 있으며, 문맥을 살펴보면 41장에서와 같이 43:10의 종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내용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종으로 밝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 장의 나머지 부분까지 종 주제가 장의

나머지 부분으로 흘러갑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종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종이다. 그것은 또 다른 질문이 발생합니다. 종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일부이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것은 분명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43장 23절: “ 번제할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희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소제물로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향을 요구함으로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즉, “ 나는 소제물로 네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와 “네가 네 죄로 나를 무겁게 하였느니라” 는 말씀과 비교된다. NASB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NASB와 NIV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의 명시적인 진술이 제거됩니다. 그러나 24장에 계속하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죄를 받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 그러나 너희는 너희 죄로 나를 무겁게 하고 너희 범죄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 킹제임스 성경은 23b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사로 너를 섬기게 하지 아니하였고 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NIV는 “내가 소제를 드려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향의 요구로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노라” 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제사” 와 “곡식 제사” 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 24b절은 이 문제에 실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네가 네 죄로 나를 무겁게 하고 네 허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 허물을 도말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 4. 이사야 44:1-2      네 번째 종의 구절인 이사야 44:1-2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이 구절을 얼마나 확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시 들어갑니다. 적어도 8절로 내려갈 수 있지만 확실히 1절과 2절로 내려가 볼 수 있습니다. 44장에서 당신은 이렇게 읽습니다. “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며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맡기신 일이 반드시 성취됨을 선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일은 그가 한 일의 4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다섯 절에서 종은 2절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됩니다.

처음 다섯 구절에서 당신은 야곱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4장 3절에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 내가



목마른 땅에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 주고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은 풀밭의 풀처럼, 흐르는 시냇가의 미루나무처럼 돌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 수많은 후손을 낳게 하실 것입니다. 물길가에 버드나무처럼 솟아난다고 합니다. 3절 마지막에 “내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 주리니”, “내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풀밭의 풀처럼, 흐르는 시냇가의 미루나무처럼 돌아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부를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손에 ‘여호와의 것’이라고 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쓸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이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사 44:3-4) 이방인의 접붙임(참조, 요엘 2:28f 오순절)

이사야 44:3-4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 주리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후,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부어 주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이사야서 32장 15절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기름진 밭을 숲으로, 숲을 기름진 밭으로 바꾸는 표현의 맥락에 있었으며, 폐인은 이를 아시리아 진격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예언의 성취가 산헤립의 도착 대신 소망을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오심에 있어서 32:15의 성취보다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년왕국에 영이 부어지는 사건에 관한 59:21b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페인이 보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고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풀밭의 풀처럼 돌아나리라.” 는 이방인의 접목을 가리킨다. 그 내용은 다음 절인 44:5에 나옵니다. 그는 44:3-4이 오순절을 예언하는 요엘서 2:28-29과 유사하다고 제안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흐르는 시냇가에 미루나무처럼 자라나는 자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부를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의 손에 '여호와의 것' 이라고 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것입니다. ” ;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그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이 이방인 들의 빛이 될 것이며 이방인들의 빛이 될 것이라는 42:6의 추가 정보에 관한 한 종에 관해

언급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 5. 이사야 44:21 종과 우상 숭배의 무익함

다음 종의 구절인 이사야 44:21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주요 구절은 아니지만 종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통과에 대한 정확한 제한을 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44장 21절은 “ 야곱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 고 말합니다. 이제 그 절은 44:21의 진술과 그 앞의 진술 사이에 의도된 대조가 있기 때문에 문맥에서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하는 방식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라” - 그리고 “이것” 은 앞에 오는 것을 가리킨다. 앞에는 우상 숭배의 헛됨,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구절이 있으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야곱아 이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니라.” “이런 일” 이란 우상 숭배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고전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두 번째 부분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에 대한 고전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45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것이요 그들의 보물도 헛것이니라.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부끄럽습니다. 누가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서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그와 그의 종족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장인은 남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확고한 입장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공포와 치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장장이는 도구를 가져다가 석탄 속에서 작업합니다. 그는 망치로 우상을 만들고, 자신의 팔의 힘으로 그것을 버려냅니다. 그는 배가 고프고 힘을 잃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지 않고 기절합니다. 목수는 선으로 치수를

재고 마커로 윤곽을 그립니다. 그는 끌로 그것을 다듬고 컴퍼스로 표시합니다. . 그분은 그것을 인간의 형태로, 그의 모든 영광 가운데 인간의 형태로 빚어 성소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백향목을 베기도 하고, 편백나무나 참나무를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숲의 나무들 사이에 자라게 두었고, 소나무를 심었더니 비가 자라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타는 연료입니다. 그 중 일부를 가져다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불을 피우고 빵을 굽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신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합니다. 그는 나무의 절반을 불에 태운다. 그 위에서 그는 식사를 준비하고, 고기를 구워 배불리 먹습니다. 몸도 녹이면서 '아! 나는 따뜻하다; 불이 보이네요.' 그 나머지로부터 그는 신, 그의 우상을 만든다. 그는 그것에 몸을 굽혀 경배한다. 그는 그에게 기도하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은 닫혀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누구도 멈춰서 생각하지 않고, ' 그 중 절반은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나는 숯불 위에 빵을 굽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내가 남은 것으로 가증한 것을 만들겠느냐? 나무토막에 절할까요?' 그는 재를 먹고, 미혹된 마음이 그를 속인다. 그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 오른손에 있는 이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냐?' 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

그러다가 21절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니라.” 그러므로 그것은 진행되는 것과  
 대조됩니다.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야곱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나의 종이다. 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종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종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43:25과 같은 또 다른 진술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 44장 22절에 “  
 내가 너희 허물을 구름같이 쓸어 버리며 너희 죄를 아침 안개 같이 쓸어  
 버렸느니라” 고 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

이사야 44:24-28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그 종에 대한  
 간략한 진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24-28절의 긴 문장으로,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실 주님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메소포타미아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할  
 도구로 고레스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인 24-28절에는 놀라운  
 예측이 있습니다. 고레스보다 한 세기 반 전인 아마도 므낫세 시대의 문맥을  
 기억하십시오. 24-28절에서 읽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구속자 곧  
 너를 태에서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는 만물을 지으신  
 자시요 홀로 하늘을 펴시며 땅을 친히 펴시며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을

폐하시며 점쟁이를 우매하게 만드시며 지혜 있는 자의 학문을 무너뜨리시고  
 허탄한 것으로 만드시는 자시니라 그는 그 종들의 말을 이루시며 그 사자들의  
 예언을 이루시나니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이 중건되리라 그 황폐한 성읍들에 대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는 깊은 물더러 말하되 내가 네 시내를 마르리라 말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라' 하고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를 닦아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갑옷을 벗기며 그  
 앞에서 문을 열어서 닫히지 않게 하려 하노라 내가 먼저 가리라 당신은 산을  
 평평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놋문을 열며 쇠빛장을 꺾으리니 내가 네게  
 흑암의 보물과 은밀한 곳에 쌓은 재물을 주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

그러므로 45장의 앞 부분과 44장 끝 부분에서는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바벨론까지 정복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바벨론 왕의 부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읽습니다: 3절, “ 내가 흑암의 보물 곧 은밀한 곳에 쌓은 재물을 네게  
 주리라 .” 그리하여 그 일이 일어날 때 이사야의 예언을 읽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종이

언급되는 곳에서 고레스의 모든 승리가 “나의 종” 야곱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종은 고레스를 위하여 세워진 자니 이 예언도 그 유익을 위하여 나온 자니라

Young의 주석서(제3권, 197페이지)에는 요세푸스가 언급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표현은 반드시 사이러스의 진정한 개종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성취를 이루는 데 자신을 사용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요세푸스에는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로 키루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흥미로운 진술이 있습니다.” Young은 그것을 Josephus로부터 가져왔는데 , Josephus는 Cyrus가 이사야가 남긴 이 예언서를 읽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백십년 전. *고대사* 1장 2절

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 이제 영은 요세푸스에 나오는 그 언급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그러한 경우가 일부 사람들이 믿었던 것만큼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키루스는 유대인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에스라서 1장에 고레스의 포고문이 나옵니다. 2절에 “바사 왕 고레스는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만국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땅을 위하여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자기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 하셨 느니라.’ ”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보았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느니라.” 이는 이사야의 말과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의미는 여러분 중 일부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역사* 에 관한 에드윈 야마우치 (Edwin Yamauchi)의 새 책이 나왔습니다 . 그가 이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7. 이사야 48:16-49:3 일곱 번째 종의 구절은 이사야 48:16입니다. 이제 48:16을 읽을 때 “종”이라는 용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보이지 않아도 그 종은 분명히 눈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 내게 가까이 와서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선포할 때부터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나는 거기에 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 함께 나를 보내셨느니라 .” 자, 48:16은 흥미로운 구절이고, 직접적인 문맥에 들어갈 때 해석에 있어서 다소 심각한 문제를 제시합니다. 문맥상 이 장의 앞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도록 부르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1절로 돌아가서 16절 이전의 내용을 보십시오. 48장 1절: “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 유다 족속에서 나온 자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되 진실과 공의로



말미암지 말라 .” “ 야곱 의 집이여, 이 말을 들으십시오 .”

그런 다음 3절,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 이전 일을 내가 미리 말하였고 내 입으로 알려 주며 알게 하였느니라.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행동하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완고한지 알았습니다. 네 목의 힘줄은 철이요 네 이마는 놋이니라 ” 5절: “ 그러므로 내가 오래 전에 너희에게 이 일을 말하였노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알려서 너희가 '나의 우상들이 그런 일을 했다. 나의 나무 신상과 금속 신이 그것들을 정하였느니라 .'” 9절: “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노라 .” 12절: “ 야곱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부른 이스라엘 곧 내가 그니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내 손이 땅의 기초를 놓았으며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펼쳤으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모두 함께 일어선다 .”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 장 전체에 걸쳐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인 “나” 가 분명히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 15절로 계속하면, “ 나 곧 내가 말하였느니라. 응,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했어. 내가 그를 데려오면 그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 16절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에 이르면 “이제 주 하나님과 그의 성령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읽게 됩니다.

이 구절의 첫 부분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뒷부분에서는 화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을 3인칭으로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석의 문제는 화자가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화자가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대해 그것이 주님의 종이 말한 것이며, 주님의 종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만족스러운 설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6절도 종의 구절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 종 자신이 하나님이니라.

당신은 “문맥상 하인의 개념을 어디서 얻나요?” 라고 말합니다. 문맥을 좀 더 살펴보면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48장 16절b에서 “주 하나님과 그의 성령이 나를 보내셨다” 를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나” 가 있습니다. 49:1로 내려가 보십시오. “ 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먼 나라들아 이것을 들으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느니라 그분은 내가 태어날 때 부터 내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 49:1에 나오는 “나” 는 누구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종 이스라엘아.” 49:3,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였느니라.” 말하는 사람은 종으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48장 16b절에서 “이제

주 여호와와 그의 성령이 나를 보내셨다” 고 말할 때 그것은 종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종 그 자신이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놀라운 생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하인의 신입니다. 나는 그 구절의 표현을 실제로 정의하는 다른 설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제안된 심오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소 비스듬합니다.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신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로 맞추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려 사항을 고려하여 그 구절을 앞의 내용과 뒤따르는 내용의 맥락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종이 말하는 것이며 종 자신이 신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앞의 문맥은 첫 번째 사람인 하나님이 말하는 곳입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1인칭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이 이 선지자가 1인칭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종류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구의 “나” 는 다음 문맥으로 갈수록 분명히 종으로 식별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가 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은 이사야가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가 종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종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종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49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느니라” 는 이사야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나”를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1인칭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습니다.” 3절을 보면 “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 “나” 는 49:1-3에서 종으로 밝혀지고, 3절에서는 그 종이 이스라엘로 더욱 밝혀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9장 5절과 6절로 내려가야 합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5절과 6절로 내려가면 3절에서는 종이 이스라엘인 것 같지만 종의 역할은 5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지으사 종-종의 기능은 야곱을 그에게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을 그에게로 다시 데려오고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르면 그 종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일지라도 그 종이 이스라엘과 구별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때 더 자세히 논의할 또 다른 요점을 제기합니다.

글쎄요, 제 생각엔 5절과 6절에 이르면 그 종이 이스라엘일지라도 종이 이스라엘과 구별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49-50장에 대해 논의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요 하인 구절에 있습니다.

49장을 볼 때까지 그것을 붙잡아 두십시오. 이사야 49장은 주요

구절이고 그것은 1절부터 끝까지 내려가며 아마도 다음 주요 종 구절인 12  
절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나 앵글 (Dana Engle)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Carly Geiman의 초기 편집

Ted Hildebrandt의 대략적인 편집

Perry Phillips 박사

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

가 다시 해설함